

2025년 01월 19일의 소식

2025 Vision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딤후 4장 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틀란타
새축복교회

2025년 1월 19일 청년부 예배

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경배와 찬양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주를 앙모하는 자 정직한 예배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Behold
기도		김하진 자매
성경봉독	사무엘상 4장 1-11절	드라마 바이블
말씀선포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최동현 목사
헌금찬송	정직한 예배	다같이
결단기도		다같이
봉헌기도		최동현 목사
축도		최동현 목사
교회소식		운영단

공동체 소식

1. 할렐루야! 새축복교회 뉴블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교회 / 사역 소식
 - 오늘 친교 | 안성모 집사님, 안금자 권사님께서 준비해주셨습니다.
 - 새해 특별새벽예배 | 1월 6일-18일 / 2주간 새해 특별 새벽예배를 드렸습니다. 2025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밀알 봉사 | 1월 18일 토요일 밀알 봉사가 있었습니다.
 - 연합예배 | 2월 23일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위원

DAY	대표기도	뒷정리
01/19	김하진	성원셀
01/26	김한솔	한솔셀
02/02	김수로	수로셀
02/09	정성원	성원셀

새축복교회의 핵심 가치

말씀 공동체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는 공동체 (엡 4:11)
치유 공동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공동체 (엡 4:12)
양육 공동체	영적 성숙으로 장성하는 공동체 (엡 4:13, 15)
훈련 공동체	제자로 세우는 공동체 (엡 4:11)
선교 공동체	복음으로 땅끝을 품는 공동체 (엡 4:11)
셀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가 함께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 (엡 4:16)
중보 공동체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는 공동체 (엡 6:18)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장년예배	오전 10시 40분
주일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금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화-금 오전 6시, 토요일 오전 7시

헌금 안내

Venmo
@newblessingchurch

Zelle ID
newblessingchurch.atlanta@gmail.com

양육과 훈련 안내

새가족 교육 (3주)
세례자 교육 (5주)
결혼 학교 (4주)
통독 훈련 (매년 1번)
셀 성경공부 (매주 예배 후)
밀알선교회 (매주 셋째주 토요일)



[이 질문지 안에 있는 질문들은 “대화과 목상을 돕는 질문” 들입니다. 시험문제와 같이 기계적으로 모두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질문을 보다가 나누고 싶은 목상이 생긴다면, 주어진 질문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없는 질문을 여러분이 셀원들에게 던지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마주치고, 그 마주침을 셀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셀 모임의 목적이기에, 그 목적 안에서 자유롭게 깊이 있는 나눔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0250119 주일청년 설교요약 | 사무엘상 4장 1-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다가 패배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삼상 4:3)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3절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듣는 하나님의 입장이 이입됩니다. 어찌하여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내내 하나님 앞에 불충하며 죄의 수렁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이래로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분명합니다. 창세기 3장 선악과를 건드린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다”는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 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진득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기도 안하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온갖 문제가 터지고 혼란이 터집니다. 그런데 무슨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거나 말이 되지 않는 억지 명분의 전쟁이 세상에 터지거나 악한 자가 득세하여 약한 자들이 희생당하는 일들이 뉴스를 장식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야기 합니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런데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섬기지도 순종하지도 않은 것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몰아내 놓고,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문제가 생기면 탓을 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애꿎게 가져다가 비난을 한탄 말입니다.

이것이 고약한 습성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걸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손대지도 않은 세상의 많은 아름다운 선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안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책임 전가 하면서, 좋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로 영광 돌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창세 이후로 줄곧 이어져 온 인간의 부패한 심성입니다.

- 이 전쟁을 위해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다!

솔직히 이 전쟁 일으키기 전에 한번이라도 하나님께 질문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왜 그들은 기도하는 신앙을 물려 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인도함 없이 싸웠으면서,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탓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 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진 예배를 재건하지 못했다

사실 원인은 흠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영적 질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죄는 “어떤 제물로도” 속함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는 “예배 자체” 를 짓밟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외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힘으로 회복을 받는 것이 예배의 약속 아닙니까?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을 마주쳐서 나의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고, 삶의 험클어진 문제를 하나님의 질서로 다스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채널 자체를 폭파 시킨 것입니다. 예배 자체를 폭파 시켰으니, 예배를 통해 회복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예배를 회복했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제가 하나님께 왜 그랬을까요?” 라는 성찰과 회개의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눔 질문

Q.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건강성을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준의 예시: 준비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지각의 빈도, 집중하는 마음,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마음)

Q. 여러분의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싶은 삶의 영역과 구체적인 제목을 나누어 봅시다.

Q. 혹시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과 남을 탓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먼 길을 돌아오게 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둘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되신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삼상 4:3)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로 할 때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더 깊은 영적 성숙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필요로 하실 때에, 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제가 어디 있었을까요? (반성과 성찰의 질문)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당신은 어딴냐고 항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부를 때 너는 어디있었느냐?”고 되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하다”고 구하는 것들이 늘 합당한 것입니까?

우리의 정욕으로 물들어 있는 잘못된 것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더 내실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무엘 2장에서 보았지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마스터 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대로 쓰임 받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함께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 6: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 6: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의로운 길을 물으며 살아가고 구하며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죽도록 매달리는 삶의 조건들은 어느새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눔 질문

Q.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부르심을 주셨을까요?

Q.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은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삼상 4:3)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하나님을 사물화 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으로” 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라는 말 자체가, 언약궤를 궤짝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건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참담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위해 나의 손으로 내가! 언약궤를 부적처럼 가져와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동기가 가득합니다.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언약궤가 머물러야 하는 곳은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위치는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에 함부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순전히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언약궤를 강제로 전쟁터로 가져온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삼상 4:4)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삼상 4:5) ○여호와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언약궤를 볼모삼아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먼저 맺으시고, 그것의 가시적인 표징으로 언약궤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관계가 온전치 않으면, 언약궤는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이 먼저고 반지가 뒤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리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우리 중에 있게 하자”는 말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자” 라는 결심을 하는 것이 좋았겠습니다. 저는 11절을 다시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것인가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삼상 4:11)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일어난 상황만 보아서는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품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의 손에서 언약궤를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는데, 그 관계를 상징적으로 지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입니다.

나눔 질문

Q.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과, 우리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Q.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